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에 대한 개념적 혼란: 설문조사 문항에 나타난 개념상 불일치를 중심으로\*

조인희  
선문대학교

**Jo, Inhee. (2011). Incoherent interpretations of th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policy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221-243.**

This paper aims to clarify some conceptual confusions concerning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policy in Korea. Despite the national drive, TEE has not been well received by Korean teachers, partly due to the mismatch between the test-orientation of the actual classrooms and the communicative orientation of TEE. Many teachers seem to prefer the English-Please class to the English-Only class: the English-Please class promotes maximal use of English, yet allows judicious use of the mother tongue to help less-prepared students. However, many surveys have reported quite the opposite results. I argue that this mismatch between the reality and the survey results derives in part from the incoherent uses of the term 'TEE': while it is declared to be the English-Only policy, its actual use in most survey questionnaires implies the English-Please policy. Three surveys were examined and found to exhibit such conceptual confusion, yielding distorted results.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revious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authorities in Korea should abandon the English-Only policy and adopt the English-Please policy: the former is simply unrealistic and the latter is a step taking us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use of English, which is the true spirit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TEE/EFL/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외국어로서의 영어]

### I. 서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영어교육 열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영어경쟁력, 특히 구두 의사소통능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간·계층간의 영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

\* 이 연구는 2010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세분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06). 이에 따라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정부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맞추어 보완하고, 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2000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 7차 교육과정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영어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실용영어와 생활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sup>1</sup>) 정책을 도입하고, 2001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04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등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특히, 2008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영어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TEE 교사인증을 도입하는 등, TEE 실시를 적극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수업시간만이라도 외국어를 해당 언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일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TEE가 한국의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책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도, 학교현장의 변화는 미미하고,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TEE의 정착은 요원해 보인다.

손경애, 이규진(2003)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세 명중 한 명 꼴(34.3%)로 정부의 TEE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상당수(341.4%)의 교사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화’되거나 ‘곧 폐지’될 것이라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2년도에서 2005년에 거쳐 진행된 초·중·고등학교 TEE수업 현황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기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TEE 수업의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중·고 영어교사의 비율은 시행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병만,

<sup>1</sup> 기존의 정책자료나 연구에서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와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는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두지 않되 TEE를 더 많이 사용하는 최근의 경향을 따른다.

박준언, 유제명, 최희경, 2006<sup>2</sup>). 그리고 이런 TEE 기피현상은 TEE 정책이 도입된 지 8년이나 지난 2008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총, 2008)<sup>3</sup>.

TEE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듣기·읽기 위주의 현행 입시제도, 학급 규모, 학습 자료부족, 학생의 수준차, 수업 주체인 교사의 영어 구사력 부족, 자신감 및 수업경험 부족 등이 지적되어왔으며(문영인, 이규선, 2002; 최진황, 2000; Sung-Ae Kim, 2002; Sung-Yeon Kim, 2002, 2008), 그런 저해 요인 중에서도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영어수업능력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장경숙, 주형미, 김한주, 이복희, 2007; Sung-Yeon Kim, 2002, 2008). 즉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위한 각종 기반이 아무리 확충되더라도, 정착 수업의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TEE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TEE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교사들에게만 지워지는 것에 대해 영어교사들은 대단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Sung-Ae Kim, 2002; Sung-Yeon Kim, 2002, 2008), 이런 심적 부담은 자기개발과 각종 연수를 통해 TEE 수업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TEE 시행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고정민, 2008; Hajin, 2008; Jky516, 2008).

그런데 많은 선행 연구들이 TEE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 대부분의 요인들—즉 듣기·읽기 위주의 현행 입시제도, 학급 규모, 학습 자료부족, 학생의 수준차, 수업 주체인 교사의 영어 구사력 부족, 자신감 및 수업경험 부족 등—은 굳이 TEE 시행에 대한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영어수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요인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며, TEE 정책 도입 이전에도 교육현장에 있었던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들이다. 그러기에 TEE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어수업 나아가서 일반적인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

<sup>2</sup> 전병만 등(2006)의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중고 영어교사 비율은 2003년 6월 22.3%, 2004년 6월 19.9%에 이어 2005년 17.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은 2002년 6월 조사에서 9.5%였으나 2003년 9%, 2004년 10.7%, 2005년 12.9%로 늘었다.

<sup>3</sup> 2008년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팀」이 전국 초·중등 영어교사(총 425명: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79명, 고등학교 12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수업 중 영어를 50%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초등 86명(41.0%)과 중등 32명(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25%미만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61명(5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TEE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육 현장에서는 TEE 시행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영어교육 관계자들이 TEE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TEE에 관한 논의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 영어교육 연구자들,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TEE의 시행 주체가 되는 영어교사와 학생 등 영어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TEE에 대해 일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TEE에 대한 논의들이 혼란만 초래할 뿐,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첫째, TEE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기술하고, 둘째, TEE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온 각종 설문조사들도 그런 개념적 혼란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셋째, 그런 개념적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들은 현행 TEE 정책을 지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II. TEE에 대한 두 가지 해석: ENGLISH-ONLY와 ENGLISH-PLEASE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TEE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각종 논의에서 TEE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즉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수업’이라는 해석과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수업’이라는 해석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마다 TEE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보다, 같은 사람의 논의에서조차 두 개념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편의상 아래의 논의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수업’을 English-Only 수업으로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수업’을 English-Please 수업으로 기술하기로 하겠다.<sup>4</sup>

### 1. 외국어수업에서 교수언어에 대한 해묵은 논쟁

English-Only와 English-Please, 이 두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정책(monolingualism)을 취해왔으며,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들어왔다:

<sup>4</sup> 필자가 조사한 한도 내에서는, Hollett(2009)이 TEE에 관한 두 가지 개념적 혼란을 기술하기 위해 ‘English-Please’란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연구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기술상 편의를 위해 서술적인 한국어 용어를 쓰지 않고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이상적인 영어교사는 원어민이다.
- 영어는 일찍 배울수록 좋다.
- 수업시간에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
- 수업시간에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의 영어수준이 저하된다.  
(Phillipson, 1992, p. 185)

그러나 Auerbach(1993)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러한 단일언어정책에 대한 근거들은 결정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Phillipson(1992)은 단일언어정책이 교육적 고려보다는 정치사회적인 고려에서 선택된 “영어제국주의(English linguistic imperialism)”의 산물이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수 많은 연구들은, ESL 환경에서 영어를 주된 교수언어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모국어의 도움을 허용하는 ‘이중언어수업(bilingual education)’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Anton & Di Camilla, 1998; Atkinson, 1987; Baker & Kanter, 1981; Butzkamm, 2003; Cole, 1998; Harbord, 1992; Krashen & McField, 2005; Miles, 2004; Phillipson, 1992; Prodromou, 2002; Wigglesworth, 2002).

서구의 ESL 수업에서의 교수언어를 둘러싼 단일언어 정책과 이중언어 정책의 대립은, 결국 외국어수업에서 목표어인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느냐 학습자의 모국어를 허용할 수도 있느냐의 문제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English-Only 정책과 와 English-Please 정책 사이의 개념적 대립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개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일언어 정책, 이중언어 정책과 같은 기존의 용어대신 English-Only, English-Pleas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ESL과 EFL 사이의 교육적 상황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미국과 같은 ESL상황에서는 영어가 기본적인 교수언어이지만, 한국과 같은 EFL상황에서는 전통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가 기본적인 교수언어이다. 그러므로 ESL상황에서는 모국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가 논쟁의 초점인 반면, EFL상황에서는 목표어인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논쟁의 초점이 된다.

전술한 바 있듯이 한국의 교육당국은, EFL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와 영어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TEE 교사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TEE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 반면 한국의 영어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English-Only 수업 형태의 TEE가 그 교육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님을 지적하고 일정부분 모국어를 허용하는 English-Please 수업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해왔다(고정민, 2008; 김승태, 정길정, 2005; 배두본, 2002; 전영주, 2005; 최용재, 2000; Dash, 2002; Chin-Hyon Kim, 2004; Sung-Ae Kim, 2002; Sung-Yeon Kim,

2002, 2008; Yoon-Kyu Kim, 2009; McKay,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English-Only 수업과 English-Please 수업의 교육적 효과나 문제점을 논하는 해묵은 논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단지 TEE에 관한 많은 논의에서 TEE를 English-Only 수업으로 규정하고 나서도 English-Please 수업도 TEE의 일종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대단히 미세한 지적이긴 하겠지만, TEE 관련 연구들이 실제로 그런 개념적 모순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논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TEE에 대한 개념적 혼란

많은 TEE 관련 정책 자료나 연구에서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며, 바로 그런 논리적 오류로 인해, 대다수의 영어교육 관계자들의 TEE에 대한 이해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TEE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당국과 TEE 시행의 주체인 교사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빚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TEE를 English-Please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English-Only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현실과 교육 정책이 갈등을 빚는가 하면, English-Only 정책을 설명하면서 English-Please수업을 예로 들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English-Please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English-Only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수업’ 즉 ‘Teaching English only in English’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런 일이다: 문자 그대로 ‘영어로 수업하라’는 말은 ‘영어 외의 말로 수업하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2002년 TESL-EJ Forum에 참여했던 Tillyer(2002)가 토로하듯이<sup>5</sup>, 많은 사람들은 “영어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것이고, 힘이 들더라도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 달걀부침을 만들려면 달걀을 깨야 하는 게 아니냐! 외국어를 배우려면 조금 불편한 건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반론을 찾기도 쉽지 않다.<sup>6</sup>

<sup>5</sup> I'm sorry but I don't have much patience with the claims that a little of the L1 is good for students because it makes them feel "comfortable." I think that it may be a case of "comfort now, pay later." . . . it is absurd (in my opinion) to talk a language other than the target language for any reason at all. The fact is that you have to break some eggs in order to make an omelet and you have to face a few moments of discomfort in order to learn a language. So what? (Tillyer, 2002).

<sup>6</sup>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영어수업은 가급적 영어로 하는 게 좋지만, 필요하다면 제한적이거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교수언어로 영어만을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모든 영어 수업을 TEE 혹은 NON-TEE 로 나누는 이분법적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극단적인 정책으로서 교육현장으로부터 소모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English-Please와 English-Only는 서로 호환될 수 있거나, 배타적 관계에 있는 개념들이 아니라, 비대칭적 포함관계에 있는 개념들로서, 그림 1과 같이 부분집합의 관계로 볼 수 있다: English-Please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English-Only는 English-Please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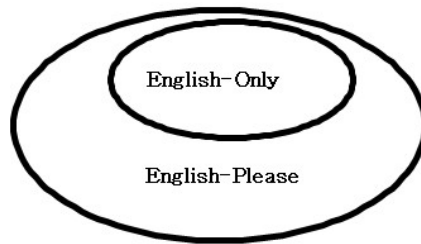


그림 1.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의 포함관계.

이러한 비대칭적 포함관계에서 English-Only 수업은 English-Please 수업의 일종으로 여길 수 있으나, 수업 중에 한국어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English-Please 수업은 English-Only 수업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 인용된 교육청 자료에서처럼, English-Only 수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당국의 TEE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영어정책 안내자료에서는 TEE가 본질적으로 English-Please 수업을 의미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해왔다.

[초등 영어 교육 활성화 방안 - 경상남도교육청]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영어교육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토록 발표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국어 사용은 일체 하지 않는 영어수업으로 해석하여 여건 조성(교사의 자질, 영어수업 시설 및 자료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다소하고 있음.

※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란?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란 수업의 전 과정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 등을

---

달걀부침을 만들려면 달걀을 깨야 하는 것 맞지만, 달걀을 산산조각 내서는 안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게 아니냐!”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기본적 의사소통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준의 수업을 의미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확대·정착해 가자는 정책적 의도임(경상남도교육청, 2001, p. 9).

이렇게 교육당국의 정책자료뿐 아니라, 심지어 학술논문에서조차, TEE 수업을 모국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영어만 사용하는 English-Only 수업이라고 하는가 하면, 꼭 English-Only 수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켜왔다.<sup>7</sup>

교실영어 정도만을 사용하는 수업을 TEE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TEE 수업 중에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언제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한국어도 쓰는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English-Only class in Korean and English)’이란 표현이나, ‘한국어도 쓰는 한국어를 배제한 수업(\*non-Korean class in Korean and English),’ 혹은 ‘따뜻한 얼음(\*warm ice)’이란 표현만큼이나 모순적인 것이다.

TEE에 대한 교육당국의 설명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연구자들마저 TEE의 개념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면, 가뜩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추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English-Only 수업과, 점진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English-Please 수업을 허용한 데서 초래된 면이 있다. TEE 정책원년인 2000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TEE 지침서(최진향, 2000)에서는 다음과 같이 English-Only 수업과 English-Please 수업 모형들을 함께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수업모형 1]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화이해 --▷ 전체를 영어로만 진행

<sup>7</sup> Some teachers tended to perceive TETE as equivalent to the use of English in managing the classroom. This confusion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Korean MOE, after announcing the TETE policy, named the materials they designed to aid in-service teachers as ‘classroom English’ (CE) materials. However, in literature, . . . TETE refers to a state of affairs in which English is used to the full extent, for any pedagogical purposes, when organizing teaching activities or chatting to students socially (Sung-Yeon Kim, 2008, p. 59)

TETE does not mean that teachers should use English all the time; tasks can be tailored to facilitate some English use by the classroom teachers. This will increase their confidence, which leads to more occasions of using English (Sung-Yeon Kim, 2008, p. 68).

[수업모형 2]

듣기-말하기 ----- ▷ 영어로만 진행

읽기-쓰기-문화이해 ----- ▷ 80%이상 영어로만 진행

[수업모형 3]

듣기-말하기 ----- ▷ 영어로만 진행

읽기-쓰기-문화이해 ----- ▷ 60%이상 영어로만 진행

위에서 [모형1]은 English-Only 수업이고, [모형2]와 [모형3]은 English-Please 수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형1→모형2→모형3]의 순으로 권장하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정책시행 1차년도(2001년)는 [모형3]이상을 도입하고, 2-3년차(2002-2003년)는 [모형2]이상을 권장하며, 4년차 (2004년)는 [모형1]을 적용하도록”한다는 제안(최진황, 2000, p. 6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당국의 TEE 정책은 분명히 English-Only 수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English-Please 수업에 해당하는 [모형2]와 [모형3]은 모든 수업에서 100% 영어로만 진행되는 English-Only 수업모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TEE의 불완전한 형태일 뿐인 것이다.

TEE가 English-Please 수업이 아니라 English-Only 수업이라는 교육당국의 시각은 최근 TEE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TEE 평가 지침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TEE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수업과는 다른 환경이다] .... TEE 수업은 어휘의 의미, 문장 및 문단의 논리적 구조, 영어 표현의 습득방법 등의 환경이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수업과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언어로서 영어를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활성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병천, 2009, p. 7)

물론 TEE의 해석을 둘러싼 일부의 오해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TEE를 단순히 교실영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English-Only 나 English-Mostly<sup>8</sup>와 같은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Sung-Yeon Kim, 2008, p. 51).<sup>9</sup>

<sup>8</sup> English-Please의 경우처럼, English-Mostly도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지칭하는 줄임말로 사용하겠다.

<sup>9</sup>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st of the teachers perceived TETE as different from simply using English for classroom management purposes. Their definition of TETE included either mostly or only English for all instructional purposes. Teacher anxiety associated with classroom teaching was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정부의 TEE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교사들의 태도를 보여준다기 보다는, 그들이 TEE 정책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경애, 이규진(2003)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정부의 TEE 정책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English-Only 수업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TEE 정책 자체를 현실성이 없는 정책 혹은 한 때 유행하다 지나갈 정책으로 치부하고, TEE 시행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TEE를 English-Only로 이해하기보다는 English-Please로 이해하는 것이 교사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TEE 정책은 분명히 English-Only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런 단호한 교육당국의 입장이, 오히려 TEE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TEE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고정민, 2008; Yoon-Kyu Kim, 2009). ‘가급적 영어를 사용해 보라(English-Please)’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반대할 명분도 반대할 필요도 없겠고, 나름대로 용기 내어 수업에서 시도해보겠으나, ‘모조리 영어로 하라(English-Only)’면 교사들의 대응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TEE 정책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영어구사력이 미흡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English-Only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와 학습자 모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교수-학습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개념의 이해 같은 심도 있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와 모국어를 적절히 함께 써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두본, 2002; 임찬빈, 김진석, 2003; 최용재, 2000; Chin-Hyon Kim, 2004; Yoon-Kyu Kim, 2009).

그러기에 2008년 초, 급진적인 영어공교육강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비공식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는 대단히 많은 현장의 영어교사와 학생들이 TEE 정책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다 (Hajin, 2008; Jky516, 2008).

이렇게 현실적으로 TEE의 시행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고, 교육현장의 심리적 저항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강력한 TEE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읽는데 오류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입안 근거가 되는 많은 설문연구조사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대체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TEE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전국에 걸쳐 10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 200명,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을

---

notable although the teachers did not seem very anxious about interacting with their students in English (Sung-Yeon Kim, 2008, p. 51).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규모 설문조사(이병천, 2009)는,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모두 80% 이상의 교사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는 보고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문조사의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TEE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들이 English-Only와 English-Please 의 개념적 차이를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TEE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관행적 분석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TEE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 대부분이 ‘가급적 영어로’ 수업을 하려는 English-Please 혹은 English-Mostly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TEE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반대 입장인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몇 편의 연구의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English-Only 개념과 English-Please 개념 구분 없이 TEE란 용어를 사용하는 학계의 관행이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III. 설문조사에 사용된 TEE 용어의 개념적 혼란

TEE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은 대단히 절실한 일이다. 교육현장에 대한 왜곡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EE정책 진단이나 개선안들은 상당부분 신뢰성과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0</sup> 놀랍게도 최근 자주 인용되는 세편의 설문조사 연구 모두에서 그런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발견된다.

#### 1. 손경애, 이규진(2003)에 나타난 오류 분석

손경애, 이규진(2003)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소재 중등학교 영어교사 302명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외국어 수업에서의 목표어 사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목표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적 입장과 목표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입장 (p. 205)”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조사 문항에서는, ‘강제적 입장’

---

<sup>10</sup> 충남 교육청에서 중등 영어교육진흥을 담당했던 모 장학사와의 사적인 대화에 의하면, 「충남 영어교육 혁신 방안(2008-2012)」의 일환으로 각급 관할 학교의 TEE 시행 현황을 조사했었으나 1년여 후 조사를 중단하였다. 주된 중단 이유는 응답 교사들의 TEE에 대한 이해가 달라,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혹은 ‘허용적 입장’—혹은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 없이, 그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들이 문항에 따라 질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소지가 있고, 설문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아래의 문항들은, 응답자가 TEE를 English-Only로 이해하는지 English-Please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설문 결과의 해석이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항들 중 대표적인 예들이다:

II.2. 귀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III.2. 귀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어느 정도 실시할 수 있습니까?

- ① 100% ② 80-90% ③ 60-70%  
④ 50% 정도 ⑤ 30-40% ⑥ 20% 이하

IV.8. 귀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100% ② 80-90% 정도 ③ 60-70% 정도  
④ 40-50% 정도 ⑤ 30% 미만.

논문의 전후 맥락으로 보아 대부분의 설문 문항 내용과 그 분석에 있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즉 TEE는 English-Only 수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TEE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 [II.2]에서는 찬성입장이 65.7%, 반대 입장이 19.2%, 입장유보가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두고, 저자는 “교사 세 명중 두 명꼴(65.7%)로 정부의 TEE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세 명중 한 명꼴(34.3%)로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손경애, 이규진, 2003, p. 210). 교사 세 명중 한 명꼴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교육당국이 TEE 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설문지에 있는 문항 [III.2] 즉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어느 정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일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TEE를 English-Only 수업으로 보는 문항 [III.2]의 해석과 상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려면, 문항 [III.2]는 “귀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로 원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고쳐 써야 한다. 이렇게 고쳐 쓴, 혹은 고쳐 이해한

질문은, 저자들의 의도와 달리, TEE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영어 수업에서 어느 정도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 즉 가능한 English-Please 수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이 되고 만다.

같은 맥락에서, 문항 [IV.8], 즉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TEE가 English-Only 수업이 아니라, English-Please 수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TEE를 English-Only 로 이해하는 경우, “모국어를 쓰지 않는 (영어만 쓰는) 수업에서 어느 정도 모국어를 쓸 수 있는가?”를 묻는 것과 같은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래에 인용된 설문 문항들도, 응답자가 TEE를 English-Only로 보는지 English-Please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해석과 응답 분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예들이다. (편의상 응답비율을 [ ]속에 부기하였다.)

III.3. 귀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67%]    ② 아니오 [33%]

III.4. 귀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 ① 명예퇴직을 생각해 볼 정도로 자신이 없다. [1.5%]  
② 대체로 자신이 없다. [16.2%]  
③ 그저 그렇다. [46.8%]  
④ 대체로 자신이 있다. [31.3%]  
⑤ 영어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매우 자신이 있다. [4.2%]

문항 [III.3]은 “English-Only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아니라, “English-Please 수업을 실시한 경험”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항 [III.2]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바로 다음 문항 [III.3]에서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본 사람이 67%나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은 해석을 하자면, 응답자들은 문항 [III.3]을 “English-Only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아니라, “English-Please 수업을 실시한 경험”을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혹은 “수업시간 내내 English-Only 방식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아니라 “수업의 일부에서나마 English-Only 방식으로 실시해본 경험”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저자들의 의도와 달리, 해당 문항을 English-Only 수업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TEE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 [III.4]에서, 과연 모든 응답자들이 TEE를 English-Please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TEE의 정책을 ‘교수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주어진 수업 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목표어인 영어의 사용을 권장하는'는 정책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정책에 일부의 교사나마 “명예퇴직을 생각해 볼 정도로 자신이 없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문항 [III.3]과 [III.4]에서 TEE를 서로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은, [III.3]이 현실적 경험을 묻는데 반해, [III.4]는 심리적 부담을 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장의 교육적 현실은 English-Please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당국은 English-Only를 요구하는 데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문항 [III.5]도, TEE를 English-Only로 보는지 English-Please로 보는지에 따라 응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III.5. 귀하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적극적이다. [6.8%
- ② 대체로 적극적이다. [34.0%
- ③ 그저 그렇다. [29.8%
- ④ 대체로 소극적이다. [23.4%
- ⑤ 매우 소극적이다. [6.0%

전적으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English-Only 수업과, 학생들의 영어수준, 교사의 영어수준, 교과내용의 난이도, 당면한 수업목표 등을 감안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사용 정도를 조정하려는 English-Please 수업은, 교수법이나 교수전략, 수업준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위의 질문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English-Only 수업으로 이해하는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English-Please 수업에 대비하는 교사는 "TEE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English-Please 수업으로 이해하는 경우, 훨씬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TEE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저자들의 의도와 달리, 설문에 사용된 TEE라는 용어는 일관되게 English-Only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결과, 설문조사의 TEE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TEE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본래 목적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 2. 민찬규(2008)에 나타난 오류 분석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개념적으로 혼동하는 경우 TEE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지에 따라,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도, “응답자들 대부분이 TEE를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응답자들 대부분이 TEE를 찬성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민찬

규(2008)의 설문조사에서 TEE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대표적인 문항들만 살펴보겠다:

설문1. 학교 영어수업에서 원어로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sup>11</sup>

- 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기타 (    )

설문2. 만약 필요하다면 원어수업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항상      ② 일주일에 한, 두 시간
- ③ 한 단원에 한, 두 시간 정도      ④ 한 학기에 한, 두 시간 정도
- ⑤ 기타 (    )

설문3. 영어수업 시간에 교사가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수업 내내      ② 되도록 자주
- ③ 학습 내용 또는 활동 지시 등 학습 중 중요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 ④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⑤ 기타 (    )

저자는 영어수업에서 ‘원어로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하는 것을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 즉 English-Only 수업으로 단정하여,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1]번에 “초등교사의 98.1%와 중등교사의 98.4% 등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민찬규, 2008, p. 173).

그러나 후속 질문 [설문2, 3]의 내용으로 보아, 많은 응답자들은 ‘원어로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하는 것을 ‘(일정부분) 원어로 수업하는 것’으로 재해석하여 응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English-Only가 아니라 English-Please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해석 하에서, 주어진 설문결과는, 저자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극단적인 TEE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될 여지도 있다.

---

<sup>11</sup> TEE가 아직 시행 초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민감한 질문은 입장 유보를 표명할 수 있도록 3점 척도가 아니라, 손경애, 이규진(2003, p. 210)처럼 5점 척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민찬규(2008)의 설문은 4점 척도도 아니고 3점 척도에 가깝고,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편향된 설문문항이다.

TEE의 적정 횟수를 묻는 [설문2]와 TEE 수업에서 적절한 영어사용 정도를 묻는 [설문3]은 문항 자체에서 이미 ‘TEE라 하더라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TEE가 English-Please가 아니라 English-Only라면,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이기에, 주당 적정 횟수나 주어진 수업에서의 적정 영어사용 정도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당 작성 횟수를 묻는 [설문2]에 대해서는, “초등교사 중 42.6%는 모든 영어수업을 목표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44.4%는 주 1-2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87%의 교사가 적어도 주 1회 이상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목표어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민찬규, 2008, p. 174). 그런데 만일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의 개념을 구별한다면, 위의 조사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도, ‘항상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교사들, 즉 English-Only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42.6% 인 반면 English-Please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57.4%에 달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목표어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는 민찬규의 해석과 달리 ‘과반수의 교사들은 목표어로만 수업을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 중 적정 영어사용 정도를 묻는 [설문3]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0.4%가 수업 내내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70% 가까운 37명이 되도록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보다 약간 적은 11.1%가 영어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와 비슷하게 약 70%에 가까운 숫자는 되도록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하여 초등학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 모두 80-90%정도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민찬규, 2008, p. 175).

그러나, 만일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구별한다면, 저자의 해석과 상당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수업 내내 영어를 사용하는’ English-Only 형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10-20%에 불과하고, 80-90%의 압도적인 비율의 교사들은 English-Please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설문1]에서 내린 결론 즉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의 필요성[에]... 초등교사의 98.1%와 중등교사의 98.4% 등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였다”는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한 교육당국의 현장인식은 크게 그릇된 것이며, English-Only를 지향하는 교육당국의 TEE 정책은 English-Please를 지향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 3. 임병빈, 전영주(2008)에 나타난 오류 분석

임병빈, 전영주(2008)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는 “TEE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정착이 되지 않았으면 왜 정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현장의 실태 파악 없이,” “2012년까지는 모든 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을 천명하였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어교육의 주체인 영어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하향식의 정책”으로서, 그 성공여부가 요원하다고 진단하고 있다(p. 300). 저자들은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TEE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래에 인용한 설문문항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임병빈, 전영주(2008)의 설문조사도 위에서 검토한 기존의 설문조사들(민찬규, 2008; 손경애, 이규진, 2003)과 동일하게 TEE에 대한 개념적 오류를 보인다:

설문1.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설문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면 주당 몇 시간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당 시수 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모두

설문3.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 진행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미만            ② 20-40%            ③ 40-60%            ④ 60-80%  
⑤ 80-100%            ⑥ 100%

이 문항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설문조사의 결과분석도 대단히 흡사하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은 주당 1회~2회 정도가 적당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40~80% 정도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임병빈, 전영주, 2008, pp. 305-307).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지녔던 개념적 오류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설문문항들에서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일관된 구분 없이, 그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두고 위 문단에 인용된 저자들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다른 해석을 제시할 여지가 있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저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한 교육당국의 현장인식은 크게 그릇된 것이며, 영어교육의 주체인 영어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하향식의 TEE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본래 연구 목적은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검토한 세편의 기존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비판과 상충되게, English-Only 수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English-Please 수업을 지지하는 주장도 결론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학습 수준을 고려할 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 . 문법과 같이 설명을 통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수업은 우리말로 하고, 실제 의사소통 활동 중심 학습은 영어 원어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중등학교 영어교육 체제를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충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민찬규, 2008, p. 18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 이는 학습자의 수준이 낮아 입력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교사가 무리하게 목표어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언어습득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임병빈, 전영주, 2008, p. 320).

그러나 English-Please 수업을 지지하는 듯한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입장은 논문의 내적 논리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연구의 결과를 부수적으로 인용하고 있거나, 저자들의 논지와 유리된 부가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전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거나, 대다수의 교사가 영어수업에서 영어를 항상 또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치 설문조사가 English-Only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설문 문항에 숨어있는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에 대한 개념적 혼란 때문에, 주어진 설문조사들은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IV. 결론: 교육적 시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교육당국의 의도와 달리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English-Only 수업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English-Only라는 극단적인 TEE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혹시 그런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English-Only와 English-Please의 개념을 혼동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는 설문연구를 근거로 삼는다면 심히 우려할 일이다.

기존의 설문연구들이 지니는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English-Only와 English-Please를 일관되게 구분한다면,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English-Only가 아니라 English-Please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재해석 되어야 하고, 그런 재해석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은 TEE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당국이 극단적인 English-Only 수업 형태를 고집하는 데서 야기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예는 ‘영어수업개선대회’일 것이다. ‘영어수업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TEE 시연대회’에 불과한 ‘영어수업개선대회’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English-Only 수업 능력만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영어수업개선대회의 1차 심사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일견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장경숙 등, 2007):

- 현장 교육 활용(실제 수업 개선) 등 실제적 기여도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 내용의 참신성(수업 개선의 창의성)
- 영어 교수 운용 능력
- 영어 구사 능력

그러나 10점 만점인 영어구사능력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어구사의 유창성(4), 정확성(3), 자신감(3) 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교수와 학생의 수준과 주어진 학습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어인 영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혹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는 없는지, 제시된 영어입력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가능(comprehensible)’한지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모범수업’이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무조건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표창하는 가운데, 좀 더 현실적인 영어수업—가능한 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되 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모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영어수업—의 효율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일은 오히려 경원시하게 되는 폐단을 피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수준과 학습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 목표어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TEE 도입의 근거가 되었던 Krashen(1985)의 언어입력 가설(Input Hypothesis)과 Long(1985)의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 등과 같은 ‘의사소통 교육(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12</sup>

교육당국은 극단적인 TEE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라 점진적 시행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전략보다는, 명시적으로 English-Please 방침을 표명하고, 학습상황에 맞추어 모국어와 목표어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TEE 관련 참고서에서는 소위 ‘교실영어’와 영어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소통중심교수법(CLT)의 기본적 원칙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 어느 특정 수준의 학생이나, 교과과정의 특정 부분을 가르칠 때 참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언어에 대한 지침—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교사 자신들의 판단과 재량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상황 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된 TEE 수지침이 개발된다면, TEE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는 개념적 오해를 자초하는 ‘잘못된 용어’(misnomer)이며,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TEE 정책을 폐기하고, English-Only 수업이 아니라 English-Please 수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영어교육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영어공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바른 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경상남도교육청. (2001). *초등 영어 교육 활성화 방안*.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sup>12</sup> 외국어학습에서 언어입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많은 연구에서 TEE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는 ‘언어입력 가설’의 주창자인 Krashen(2005)도 실제로는 일관되게 이중언어 교육을 지지해왔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Study after study has reported that children in bilingual programs typically outperform their counterparts in all-English programs on test of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Or, at worst, they do just as well....There is no doubt that, when it comes to English acquisition, native-language instruction is part of the solution, not part of the problem" (pp. 7-10)

- 고정민. (2008). 교수방법과 TETE 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학교 영어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383-407.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민의 영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참고 자료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승태, 정길정. (2005).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제 변인의 고려. *영어교과교육*, 4(2), 27-49.
- 문영인,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에 관한 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14(2), 299-324.
- 민찬규. (2008).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의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20(2), 167-190.
- 배두분.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의 조건과 교사의 역할. *영어교육연구*, 14(1), 137-161.
- 손경애, 이규진. (2003).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 30(1), 201-234.
- 이병천.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 평가도구 개발*. (연구보고 RRE 2009-1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병빈,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 임찬빈, 김진석. (2003). *영어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연구 (II)*. (연구보고 RRC 2003-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경숙, 주형미, 김한주, 이복희. (2007).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병만, 박준언, 유제명, 최희경. (2006).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전영주. (2005). 영어활용 영어수업의 이론과 실제. *신영어영문학*, 43, 259-282.
- 최용재. (2000). 영어를 통한 영어교육. *바른영어교육*, 29(11). 월드와이드웹: [http://www.mantoman.co.kr/sub06/sub06\\_3.asp?indxkey=29&indx=3&num=247&page=4](http://www.mantoman.co.kr/sub06/sub06_3.asp?indxkey=29&indx=3&num=247&page=4)에서 2010년12월5일에 검색했음.
- 최진황. (2000).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모형 및 교실영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총. (2008). 영어 공교육 실천방안에 대한 교사 설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08-10-2.
- Hajin. (2008). 교직 2년차 서울지역 영어교사로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 월드와이드웹: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57713>에서 2008년2월5일에 검색했음.
- Jky516. (2008). 전교조 교사로서 영어몰입수업을 다시 시작하며!!! 월드와이드웹: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61861>에서 2010년11월20일에 검색했음

- Anton, M., & Di Camilla, F. (1998). Socio-cognitive functions of L1 collaborative interaction in the L2 classroom.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4(3), 314-342.
- Atkinson, D. (1987). The mother tongue in the classroom: A neglected resource? *ELT Journal*, 41(4), 241-247.
- Auerbach, E. (1993). Reexamining English Only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27(1), 9-31.
- Baker, K., and de Kanter, A. (1981). *The effectiveness of bilingual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Washington DC: Office of Technical and Analytic Systems, U.S. Department of Education.
- Butzkamm, W. (2003). We only learn language once. The role of the mother tongue in FL classrooms: Death of a dogma. *Language Learning Journal*, 28(1), 29-39.
- Cole, S. (1998). The use of L1 in communicative English classrooms. *The Language Teacher*, 22(12), 11-13.
- Dash, P. (2002). English Only (EO) in the classroom: time for a reality check? *The Asian EFL Journal*, 4(4), 1-20.
- Harbord, J. (1992). The use of the mother tongue in the classroom. *ELT Journal*, 46(4), 350-355.
- Hollett, Chad. (2009). Teaching English in English in Korea. Retrieved August 1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epik.go.kr/board/detail.epik?num=11&pageIndex=5&bid=9>.
- Kim, Chin-Hyon. (2004). Is EFL learning really served by the idea of using English as the only language of communication in classrooms? *Modern English Education*, 5(1), 29-41.
- Kim, Sung-Ae. (2002).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classes in the Korean context. *English Teaching*, 57(4), 315-346.
- Kim, Sung-Yeon. (2002). Teachers' perceptions abou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nglish Teaching*, 57(1), 131-148.
- Kim, Sung-Yeon. (2008). Five year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Responses from teachers and prospects for learners. *English Teaching*, 63(1), 51-70.
- Kim, Yoon-Kyu. (2009). CLT and TETE in Korea: Practical suggestions for realistic practices in the EFL classroo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8(1), 103-117.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 New York: Longman.
- Krashen, S., & McField, G. (2005). What works? Reviewing the latest evidence on bilingual education. *Language Learner*, 1(2), 7-10, 34.

- Long, M. (1985).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 393). Rowley, MA: Newbury.
- McKay, S.L. (2009).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movement in South Korea. *CAPE Teacher Talk 37*.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ape.edu/docs/TTalk0037.pdf>.
- Miles, R. (2004). *Evaluating the use of L1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odromou, L. (2002). The role of the mother tongue in the classroom. *Issues, 166*, 7-9.
- Tillyer, A. (2002). Using the first language in second language instruction: If, when, why and how much? *TESL-EJ, 5*(4).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tesl-ej.org/wordpress/issues/volume5/ej20/ej20f1/>.
- Wigglesworth, G. (2002). The role of the first language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Friend or foe. *English Teaching, 57*(1), 17-31.

조인희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영어학과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Tel: (041) 530-2411/ H.P.: 010-3440-2279  
Email: inheejo@sunmoon.ac.kr

Received 15 December 2010

Revised 4 February 2011

Accepted 8 February 2011